

뉴라이프 한국학교 뉴스레터

New Life Korean School Newsletter

학부모, 그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이 찾아 왔습니다. 이제 밤바람도 그리 차갑지 않고, 주위에서 쉽게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학교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삶에서도 생기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기를 온 교직원이 함께 기도합니다. 2024 년 봄학기의 세번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1. 학교 운영

- **봄학기 기간: 1 월 26 일 - 5 월 10 일**
- **학급 운영: 오후 5 시 30 분 - 7 시 30 분**
-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5 시 30 분에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어와나는 7 시 40 분에 시작합니다. 어와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9 시에 교회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 학교의 마지막 날은 5 월 10 일로 이제 5 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 및 안전관련 유의사항

-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본인이 감기나 COVID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가정에서 완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감기나 다른 증상으로 학교의 다른 구성원 건강에 우려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해서 조기 픽업할 수 있도록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학생과 교사 등 우리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3. 학부모 식사봉사 자원

- 지금까지 학생들의 저녁 식사 제공을 위해 수고하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자원봉사하지 않으셨다면, 담당자가 연락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 봉사자께서는 식사봉사부를 돕는 단순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식사 당번날에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오셔서(5 시경) 주방의 학교봉사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일정

- 4 월 12 일:고학년 한국의 가옥(온돌) 배우기 강의

- 4월 19일: 저학년 한국 동요 배우기 활동 1, 고학년 한국 가옥 모형 만들기 활동
- 4월 26일: 저학년 한국 동요 배우기 활동 2
- 4월 20일: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참석할 학생들은 별도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 4월 27일: 콜로라도 한글학교 연합회 주관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
 - 이날(토요일)의 대회 참석은 선택사항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문한국학교에서 열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10 입니다.
 - 피자가 제공되고, 오로라시에서 제공하는 소방차를 견학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 5월 10일: 종강식, 한국학교 장터
 -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8월중: 2024년 가을 학기 개강
 - 가을학기는 8월 중에 개강하며 개강일 등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면 이 뉴스레터와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 및 정보

- 학교 운영사항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주시거나, 학교 웹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conlmcks@gmail.com)
- 한국학교 웹사이트: <https://newlifekoreanschool.org>
- 뉴라이프 한국학교는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셨으나 예배의 참여,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교직원 또는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예배와 다른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은 Korean.net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유용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끔 찾아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모든 생명이 다시 깨어나고 활동하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삶에 잠들었던 소망도 함께 기상하기를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온 교직원이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뉴라이프 한국학교 드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